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BY: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6338

*2008*년 *2*월
국어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천상병 시 연구

- 세계인식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박 지 경

천상병 시 연구

- 세계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World Cognition in Chen Sang-byeong's Poetry

*2008*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박 지 경

천상병 시 연구

지도교수 백 수 인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박 지 경

박지경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남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백 수 인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 문 석 인

*2007*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방법 및 범위····· 5

Ⅱ. 초기시의 세계인식····· 7

1. 세계인식의 부정성····· 8

2. 단절과 소외····· 16

Ⅲ. 중기시의 세계인식····· 24

1. 세계인식의 긍정성····· 24

2. 소통과 만족····· 30

Ⅳ. 후기시의 세계인식····· 39

1. 세계인식의 종교성····· 40

2. 동심지향····· 45

Ⅴ. 결　　론····· 51

■ 참고문헌····· 53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Cognition in Chen Sang-byeong's Poetry

Ji-gyeong Park.

Advisor : Prof. Su-in Bae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poetry written by Chon Sang-Byeong beyond the interpretation of his poetry as a clue for research on his life. And this study speculates various themes and recognition on the world revealed in his poetry out of the theory of his image as a 'positive outsider' of disinterest and satisfaction identified by previous researchers. For this, it classifies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etry to speculate the aspects.

In particular, it raised a question on our understanding that he was a happy poet, and speculated the following questions : how his recognition on self and the world was represented in poetry in each period by interpreting him as a social entity who had both happiness and unhappiness due to ups and downs of his life and how his recognition on the world affected his poetic lif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a composite approach by developing the perspective of his entire postic cycle which has been discussed a little bit intensively out of the past minor approach.

Chapter 2 speculates Chon's recognition of the world based on emotion and sense of value of the speakers in his poetry and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centering on his poetry which was written before 1970s.

First, Chon Sang-Byeong's first poetic period is a period when negative

recognition on the world was formed due to isolation, and loneliness and sorrow were melted in his poetry. The space recognized and natural things in it also made him isolated. From the reality that considered him as incompetent and insignificant, he wanted to escape, wished things collapse and had a difficulty in communication with the world by regarding the world as negative as it gave pain to him.

Therefore, his poetic tension was described with refined words and depressed images, which represented his negative recognition on the world and configured his internal emotions such as sorrow, loneliness and melancholy.

However, his negative recognition and isolation changed as he recognized and accepted reality, and showed his will to change.

Now, the poet looked at reality in a stable view and intended to accept it as it was. Here, it seems that his internal element to accept the contradiction and limit of reality as well as external elements such as bonding with family through marriage and stability worked effectively. Communication with others and reality brought him to positive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his poverty.

As his recognition changed gradually, he began to write peaceful and calm poetry. It is based on his desire to accept himself and to express what he felt and thought himself honestly.

The positive recognition developed transcendently and in particular, through Catholic life and belief, he obeyed and thanked to the God. He 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the God as important and was freed from the value assessment on himself. He pursued innocence like infants and showed transcendental recognition on the world. As the poet's dependence on the God and pursuing for the innocence originated from his intention to converge himself to more magnificent and central thing, they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evidence to watch his transcendental recognition on the world.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천상병 시인은 독특한 시적 이력과 많은 기행으로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을 확연하게 각인시킨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다.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는 등단 이후 꾸준한 시작 활동과 꾸밈없는 무욕의 정신으로 순수 서정 시인의 대표적 모습을 지켜왔다.

천상병(1930~1993)은 1952년 『문예』 지 1월호에 시 「강물」이 청마 유치환에 의해 추천된 후, 그 해 5, 6월 합초본에 시 『갈매기』가 모윤숙에 의해 추천되어 정식으로 등단한다. 1993년 세상을 떠날 때가지 『새』(1971), 『주막에서』(1979),『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1984), 『저승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1987), 『귀천』, (1998),『요놈 요놈 요 이쁜 놈!』 (1991), 유고시집 『나 하늘로 돌아가네』(1993) 등 총 7권의 개인 시집과 동화집, 산문집을 펴내며 꾸준히 시작 활동을 하였다.[1)]

하지만 천상병이 적지 않은 작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자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하려는 연구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은 천상병을 특징짓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작용해 그의 작품성을 가리운 탓이라 볼 수 있다.[2)]

그에 관한 비평적 언급들은 그의 기행적인 삶만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시적 이미지의 특징만을 고찰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시인 개인의 삶이 시작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시인의 삶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시세계에 대한 연구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시 자체의 깊이 있는 연구를 저해할 수 있는 시점의 발아이다.

이에 필자는 천상병 시인의 삶에의 연구와 그와 관련된 고리로써의 작품 해석에서 벗어나 시 자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느꼈으며 천상병 시인의 삶은 시의 세계인식과 특징을 결정짓는 기준정도로 사용되어야 함을 인식했

---

1) 이은규, 「천상병 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5, p.1.

2) 이자영, 「천상병 시의 공간과 시간」,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1997, p.5.

다.

또한 천상병 시인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의 시 「귀천」으로 대표되는 무욕의 경지와 낭만적 아웃사이더 기질이다.[3] 시인의 시세계를 가난을 초월한 범인의 작품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가난을 마음껏 즐기고 물질적 사회와 사회화된 집단의 구성원이기를 자처하지 않는 그를, 우리는 행복의 잣대로 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인도 인간이며 본능적 욕구를 지닌 보통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를 통한 사회와의 소통에 대한 욕심도 있었을 테고 언제나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 역시 시를 통해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했을 것이고 좌절과 극복을 겪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파악된 무욕과 만족의 '긍정적 아웃사이더로'서의 천상병 이미지론에서 탈피하여 시의 전면과 이면에 드러난 다양한 주제의식과 세계인식을 연구함으로써 천상병의 시 전체에 특징을 분류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천상병의 생애나 시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충분한 조명이 되었으므로, 가능한 천상병 시에 나타난 세계인식을 그 출발선으로 잡아 전기, 중기, 후기의[4] 각 시기의 시에 발현 돼 있는 시의 주제와 그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세계인식을 연구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그의 인식이 각 시기에 어떻게 시로 표현되었는지, 폭넓게 조망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천상병 시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이미지를 통한 서정성과 전통적 리얼리즘에 대한 시에 대한 내적평가이다.

먼저 천상병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조태일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당시 시단의 지나친 기교주의를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천상병 시의 무기교성에 대한 순수성은 높이 사면서도 창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결여된 안이한 상태는 시인과 시를 무

3) 콜린 윌슨은 『아웃사이더』(범우사, 1992)에서 낭만적 아웃사이더란 유토피아를 꿈꾸는 자이며, 본질적으로 몽상가이며 공허한 날을 노래하는 한량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4) 시기를 나눈 기준은 시인의 삶의 줄기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는 연구방법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력하게 만든다고 평가함으로써 이중적인 차원의 평가를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티없이 맑은 서정을 쉬운 말로 간결, 명료하게 표현하여 우리에게 넉넉한 휴식과 여유를 안겨준다"고 간략하게 조망하고 있다.[5)]

김성욱은 '새'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천상병의 시세계를 고찰하였다. 그는 천상병의 시가 우리의 현대 서정시의 전통에 속하며, 김소월, 조지훈, 서정주, 박재삼 등의 시세계와 동질적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6)]

김우창은 시집 『주막에서』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전과 이후의 시세계를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그는 천상병의 시를 초기의 '순수서정시'와 후기의 '리얼리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시기의 특성이 상호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초기의 서정성이 상승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7)]

체재순은 작품에 나타난 새, 물, 하늘, 길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천상병의 시세계를 조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천상명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하고 있는지 설명하였다.[8)]도 부담이 없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다고 했다.[9)]

최동호는 천상병의 시에서 무욕과 순진함을 볼 수 있으며, '새'의 심상을 중심으로 그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10)]

민영은 천상병의 순진무구한 삶을 회상하면서 그의 시는 꾸밈이 없으며, 누구나 읽기 편한 대중적 시로 평가하였다.

김은정은 그동안 많이 다루어졌던 천상병 시의 이미지인 '하늘' 이나 '새'가 아닌 '물'을 다루면서 물 이미지가 함축하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11)]

다음으로 천상병의 시를 별개의 이미지로 보는 것에서 발전하여 그의 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이어진다.

이양섭은 천상병의 시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면서 그의 시세계를 포괄적으로

---

5) 조태일, 「민중언어의 발견」, 『창작과 비평』,창작과 비평사, 1972, 봄.

6) 김성욱, 「새의 오뇌 - 천상병의 시」,『시문학』, 1972.

7) 김우창, 「순결과 객관의 비학 - 천상병의 시」,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79 봄.

8) 체재순, 「이미지 고찰을 통한 천상병의 시의식 연구」, 강릉대 석사학위논문, 1998.

9) 민영, 「짜릿한 박하술 맛」, 『나 하늘로 돌아가네』,청산, 1993.

10) 최동호, 「천상병의 무욕과 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미래사, 1991.

11) 김은정, 「천상병 시의 물 이미지 연구」, 『한국언어문학』42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논의한 최초의 학위 논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천상병의 시집『새』에서는 비극적 세계 인식에 깊이 침윤되어 있는 시의식이 낭만적 세계관과 연관돼 있다고 말하였다.[12)]

박숙애는 시세계를 변모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시, 후기시로 나누어 구분하여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특징과 '새'와 '하늘'을 자유와 순수라는 상징적 의미를 연결시켜 다루었다.[13)]

김재홍은 천상병의 시적 경향을 '무소유 또는 가난의 철학', '소외와 외로움의 정서' '과거적 상상력과 흐름의 시학', '자유지행성', '동심지향성' 또는 '천진성의 시학', '기독교적 세계관' 등으로 나누었다. 그의 평론은 다른 이들에 비해 분량은 적지만 시세계 전반의 주요 특성들을 체계적으로 요약한 성과라고 할 만하다. [14)]

정한용은 초월지향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는데 '현실을 토대로 한 이상 추구', '환상, 몽상을 통한 현실 극복', '주변부, 사소함에의 안주', '초기의 낭만성 및 모더니즘의 자세로부터 중기의 현실 수용 및 대결의 자세로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초월성이라는 특질을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이론 체계로 전제함으로써 학문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15)]

홍금연은 천상병 시세계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고 각각 대립과 단절의 관계, 소통의 관계, 친화적 관계의 구조를 자아와 세계의 대응 양상으로 살펴보았다.[16)]

이은규는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를 각각 '주관적 서정과 순수의식', '일상적 현실인식과 수용 의지', '종교적 세계관과 미래지향성' 으로 나눠 천상병 시의 양상을 연구하였다.[17)]

이유진은 천상병 시에 반복된 시어가 가지는 이미지를 알아보고 허무의식 형성을 보여주는 전기시와 현실인식과 죽음의식을 보여주는 후기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18)]

---

12) 이양섭, 「천상병 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2

13) 박숙애, 「천상병 시 연구 」,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1998.

14) 김재홍, 「무소유 또는 자유인의 표상 - 천상병론」, 『현대문학』, 1993, 6.

15) 정한용, 「한국 현대시의 초월 지향성 연구 - 김종삼, 박용래, 천상병을 중심으로」,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6.

16) 홍금연, 「천상병 시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17) 이은규, 「천상병 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18) 이유진, 「천상병 시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01.

배상갑은 천상병 시세계에 대한 양상을 시간성과 공간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시간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고 공간성은 하늘의 어둠과 아픔, 소외와 궁핍의 현실에서 벗어난 피안의 세계이며 꿈의 공간으로 상승적 동경과 이상의 지향점이라고 하였다.[19]

문세영은 천상병 세계의 전반을 관류하는 주요한 특질이 모성회귀하고 파악하고 그것이 시작품을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분석하였다.[20]

세 번째로 천상병 시인의 기인적 삶을 근거로 하여 시를 통한 사상관을 살펴보는 관점이다.

박미경은 천상병의 시를 소재적 관점에서 자연물과 인간, 심상적 관점에서 하늘과 새, 그리고 사상적 관점에서 노자 사상과 기독교 사상으로 분류해서 논의하였다. 특히 노자의 자연과 무욕을 추구한 삶이 천상병과 닿아 있다고 말하였다.[21]

신익호는 천상병의 시를 기독교 의식 양상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시인의 가난과 무소유한 삶은 물욕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울 때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종교적 역설이며, 시인은 종말론적 세계관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비상과 귀천을 꿈꾸었다고 하였다.[22]

3. 연구 방법 및 범위

본고의 연구 방법은 천상병 시에 드러난 시의 세계인식 분석을 그 출발로 한다.

먼저 천상병의 시세계를 『천상병 전집』을 토대로 크게 초기시, 중기시, 후기시로 나누었다. 이 구분은 시적 상황과 특징을 토대로 그의 시를 나눈 결과이다.

흔히 시세계에 대한 시대구분은 시대·시간별이나 발행된 단행본으로써의 구분 그리고 시 작품 하나하나의 낱낱의 분석을 통한 방법이 두루 쓰인다.

저자 또한 두 번째 방법을 통한 시대 구분을 하려 했으나 단행본별 시의 겹침이 심하고 집필별 연도와 출간된 연도가 구분되지 않은 천상병의 단행본을 통한 시대 구분이 부적절하다 여겼디.

---

19) 배상갑, 「천상병 시의 시간성과 공간성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2002.

20) 문세영, 「천상병 시의 모성 회귀성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3.

21) 박미경, 「천상병 시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1996.

22) 신익호, 「천상병 시 연구」, 『한남어문학』 21집, 한남대 국어국문학과, 1996.

따라서 천상병의 삶에 영향을 끼친 큰 사건과 시의 주제의식이 구분되는 일치점을 찾아 시대부분을 해 보도록 하였다.

즉 결혼하기 전의 방황과 슬픔의 정서를 담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시들은 초기시에 속하며, 결혼과 정착이라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본 1970년대 이후의 시들이 중기시에 속한다. 그리고 형이상학적 종교의 세계와 천상에 대한 동경, 동심의 순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1990년대의 시들은 후기시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세계인식을 분류하는 중요한 첫 번째 기준점은 세계인식에 대한 시인의 잣대로 표현된 시작물과 시의 주제이며 두 번째 기준점은 사회에 대한 행동인로서의 사회와의 소통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개념이 자아에 대한 시적 자아의 긍정과 부정 초월의 세계인식이며 그에 따른 삶과 세계 사회에 대한 가치판단이다.

그런데 시는 시적 화자 (서정적 자아, 탈 persona)가 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세계인식에 대한 자아 동일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시인의 고백에 투영되어 있는 함축적 의미가 자아의 세계인식의 다양한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필자는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거기에 드러나는 몇몇 특징적인 세계인식들을 서정적 자아를 통한 시인의 고백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천상병의 시세계를 『천상병 전집』을 토대로 세계인식을 분류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나눈 시기별 작품들을 시 속에 발현된 세계인식[23]을 긍정과 부정, 초월의 양상으로 적용하여 연구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논문의 Ⅱ장에서는 천상병의 시세계에 대한 부정적 세계인식 연구를 통해 시 속에 나타나는 세계인식의 부정성과 고립과 소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장에서는 천상병의 시세계에 대한 긍정적 세계인식 연구를 통해 시 속에 나타나는 세계인식의 긍정성과 소통과 만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Ⅳ장에서는 천상병의 시세세계에 대한 초월적 세계인식 연구를 통해 시 속에 나타나는 세계인식의 종교성과 동심 지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연구는 천상병의 시 전편을 대상으로 하고 시집 『새』 (조광출판사, 1971,),

---

23) 여기서 세계인식, 자아개념, 자아태도, 자아존중감, 자아평가 등은 동의어로 같은 뜻을 나타내는 심리학 용어이다. 세계인식은 자신이 되고 싶은 정체를 말한다. 이는 긍정과 부정의 일직선상에서 나타나는 개인에 대한 평가된 신념이며 느낌이다. 높은 자아인정을 지닌 사람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은 자아존중감, 자아수용감을 획득하기 어렵다.

『주막에서』 (민음사, 1979), 『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오상출판사, 1984), 『저승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 (일선출판사, 1987), 『귀천』 (살림, 1998), 『요놈 요놈 요 이쁜 놈!』(답게, 1991), 『나 하늘로 돌아가네(유고시집)』 (청산, 1993) 등 7권을 기본 자료로 삼아 시기별 특징과 세계인식의 발현이 효과적으로 표현된 특징적인 시 몇 편을 예로 들어 설명했으며 평론과 번역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힌다.

Ⅱ. 초기시의 세계인식 - 부정적 세계인식

브래드쇼(Bradshaw,1998)는 부정적 자기감정은 소속감과 유대감의 결여를 통한 소외와 자아에 대한 불신감, 그리고 스스로가 행한 행동들에 대한 부정적 결과 예견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2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적 결과를 만드는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천상병은 1967에 동백림 사건[25]에 연류 되어 체포, 약 육 개월 간 옥고를 치렀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심한 음주, 영양실조로 서울 시립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행방 및 사망으로 처리 되어 살아 있는 시인의 유고시집인 『새』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쓰여진 1970년대 시들은 시적 자아의 세계인식의 부정성과 피해자로서의 도피의식, 소외로 인한 외로움들이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시인의 주변 상황은 그를 사회로부터 분리시켰다. 흔히 세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은 주변 세계 (사람과 사회)가 자신을 거부할 때, 혹은 비하할 때 형성되며 자신도 알게 모르게 스스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신의 구성요소들을 스스로 격하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행동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든다.

1. 세계인식의 부정성

5o년대 이후 이 땅에 태풍처럼 밀어닥친 외국 문학 사조의 영향으로 주지주의니 실존주의니 하는 걸맞지 않게 외제 기성복을 재빨리 갈아입은 낯도깨비 시인들의 시는 저널리즘의 각광을 받았으나 그 밖의 순정한 서정시들은 맹물같이 무미하다며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러한 때에 천상병의 시가 환영받을 리 없었고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26]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는 세계와 소통할 수 없었던 시인은 자신의 삶을 긍정과 여유로움의 달관의 처지로 견뎌내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며 그런 정서는 슬픔, 고독을 통해 고스란히 시로 형상화되었다.[27]

---

24) 송운섭, 『인간관계론』, 학현사, 1994, pp.266~267.

25)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의 반정부 간첩단사건.

26) 민영, 「천상병을 찾아서」,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강천, 1990. p.65.

또한 자신을 무능하고 시시한 시인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대해 그는 도피하고 싶어 하고 개체의 소멸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아픔을 가하는 세계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의 천상병의 시는 우수, 슬픔, 고독의 내면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28]

아래의 시는 시적 화자의 세계인식의 부정성을 자연과 세계의 유한성으로 표현한 시이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 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

- 「강물」 전문 -

27) 남기혁, 「아웃사이더의 시학 : 천상병론」, 『한국 현대시의 비판적 연구』, 도서출판월리, 2001, p.116.

28) 김희정, 「천상병의 전기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0, pp.31~32.

화자는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것을 보고 인생의 유한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1연에서 시적 자아는 존재의 숙명적 소멸, 즉 삶의 비극성의 원인이 슬픔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만은 아니다'를 사용하여 인생의 비극성에 폭넓은 의미를 부여하였다.[29] 이 시에서 물은 유한성을 부여하는 상징적 이미지로 시간적 의미에 초점을 맞춰 형상화하고 있다.

강물과 바다는 같은 물이란 것으로 일축시킬 수 있지만, 강물은 시작과 탄생을, 바다는 끝과 소멸을 드러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고 유한성은 시인을 슬픔과 허무로 빠뜨린다. 또한 2연에서 그리움으로 피워낸 해바라기조차 언젠가는 져가는 생명체로써, 보람과 노력을 불살라버리는 태양을 바라보는 아이러니한 대상물이기에 화자는 절망하며 세계와 삶의 축소와 연장인 강물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다.

더욱이 3연까지 반복된 부정어의 사용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끝날의 맞딱뜨림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슬픈 건 단지 그 유한의 현장에 자신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를 울게 만든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라고 시를 끝맺음으로써 시 안에 표현하지 못한 부정된 강물의 실체가 많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아래 시 「등불」을 통해 더욱더 생생한 고통스러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 조그마한 불길 속에
누가 타오른다.
아프다고 한다. 뜨겁다고 한다. 탄다고 한다.
허리가 다리가 뼈가 가죽이 재가 된다.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다.
아, 나의 얼굴

29) 문세영, 「천상병의 시의 모성회귀성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3, p.17.

코도 입도 속의 살도
폐가, 돌 모두가
재가 되어진다.

- 「등불」 전문 -

시적 화자는 조그마한 불길 속에서 누군가 타오른다고 한다. 그리고 '아프다, 뜨겁다, 탄다' 고 하면서 불길 속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고통의 이미지를 심화 시킨다. 이 뜨거움은 인간의 괴로움을 형상화한 것인데, 보편적인 인간에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간 특정한 사람으로 전이되고, 나아가 시적 화자에게까지 고통스러움을 준다. 그래서 타오르는 사람은 시적 화자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디서 만난 사람이기도 하며 시적화자 자신일 수도 있다.[30]

이러한 확장은 바라보는 객체로써의 아픔이 자신의 '코와 입과 속의 살, 폐도 재가 돼 간다' 고 형상화하면서 자신의 세계로 전이시키고 있다. 이것은 당시 어두운 정치적 현실과 폭력적 사회로부터 고통 받는 민족 전체를 상징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타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처지임을 보여준다. 뜨거움은 시적 화자의 고통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통인 것이다.

따라서 시적화자는 등불같이 보잘 것 없는 폭력과 억압에도 한 줌의 재로 탈 수 있는 상처 받은 존재이면서도 이를 애써 타인인 것처럼 객체화하여 바라보려고 하지만 끝내는 자신의 공간으로 불이 번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만다.. 이는 자신과 세계 모두를 곧 타버릴 위태하고 불안전한 세계로 인식하는 가장 결정적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아래 시 「무명전사」는 세계와 자아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인 시로써 자아의 세계로부터의 도피, 탈출 욕구가 간절히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 박유미, 「천상병 시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5, pp.17~18.

지난날엔 싸움터였던
흙더미 위에 반듯이 누워
이지러진 눈에서 그대는
그래도 맑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가

구름이 가는 저 하늘 위의
그 더 위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를 지금 너는 보는가

썩어서 흐무러진 살
그 살의 무게는
너를 생각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살의 무게가 되었고

온몸이 남김없이
흙 속에 묻히는 그때부터
네 뼈는
영원한 것의 뿌리가 되어지리니

- 「무명전사」 부분 -

이 시에서는 현실을 '지난날엔 싸움터였던 흙더미'라고 표현하여 대립, 갈등 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시적 자아가 살던 현실은 이미 싸움터로 변했고, 윤리적 삶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였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고통 받아서 이즈러진 눈으로 맑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 맑은 하늘은 싸움터 같은 세상과 대립되는 곳이다. 그것은 땅의 속성, 즉 현실적, 지상적인 것과 다분히 대조를 이루면서 창조자, 초월적 존재, 절대 신이 사는 곳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적 자아가 지상에서 천상을 간절히 소원하고 있으며 죽어서라도, 뼛가루가 되어서라도 그곳에 닿아 영원의 뿌리가 되고자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천상 동경은 모성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나아가 현실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간절하게 벗어버리고 탈출하려는 욕구가 강하며 그것은 가치를 상실한 척박한 땅만을 디디며 산 화자가 죽음을 통한 영원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명전사」는 세계와 현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통해 현실을 죽어서라도 탈출하고픈, 뼈의 고향으로라도 가고 싶지 않은 처절한 공간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정적 공간 인식은 그 답지 않은 폭력의 직설화법이 눈에 띄는 아래 시에서도 계속된다.

골목에서 골목으로
저기 조그만 주막집
할머니 한 잔 더 주세요.
저녁 어스름은 가난한 詩人의 보람인 것을…
흐리멍텅한 눈에 이 세상은 다만
순하디 순하기 마련인가,
할머니 한 잔 더 주세요.
몽롱하다는 것은 莊嚴하다 .
골목 어귀에서 서툰 걸음인 양
밤은 깊어 가는데,
할머니 등 뒤에
고향의 뒷산이 솟고
그 산에는
철도 아닌 한겨울의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산 너머 쓸쓸한 성황당 꼭대기,
그 꼭대기 위에서

함빡 눈을 맞으며, 아기들이 놀고 있다.
아기들은 매우 즐거운 모양이다.
한없이 즐거운 모양이다.

- 「주막에서 - 도끼가 내 목을 찍은 그 훨씬 전에
내안에서 죽어간 즐거운 아기들 <장쥬네>」 전문 -

위 시에서 구조적 견인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과거적 상상력이다. 시에 등장하는 할머니에게나 시인에게나 모두 작용하는 그리움의 대상인 자연과 교감하던 동심의 시절은 이미 사라져버린 후이므로 옛날에 대한 연상이 더 한층 절실한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시의 에피그라프,[31] <도끼가 내 목을 찍은 그 훨씬 전에 내안에서 죽어간 즐거운 아기들> 라는 장쥬네의 인용만 보더라도 시인이 상상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순진함 역시 그 이전에 상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2]

또한 여기서 주막은 술집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시에서의 주막은 길 떠난 나그네나 행상이 머물고 쉬었다 가는 안식과 휴게의 장소이자 마을 젊은이들의 교화 장소이기 때문이다.[33] 주막은 당시 젊은 시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현실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는 장소였으며 세상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안에서 도모하는 도피자들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장소에 등장한 할머니와 할머니 등 뒤에 보이는 산도 자신을 감싸 줄 수 있지만 영원할 수도 없고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것으로 그 의미가 구체화된다.

왜냐하면 할머니 등은 따뜻하지만 부재의 대상이며 할머니 등 뒤에 그리움을 지닌 고향의 뒷산은 상상의 산이기 때문이다. 상상의 산은 실제로 존재하

31) 에피그라프(epigraph)는 우리말로 '제사'라고도 하는데, 소설이나 시 앞부분에 다른 문학작품이나, 기타 신문기사, 혹은 잡지 등의 글을 인용하여 앞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소설이나 시의 전체적인 주제나 의미를 독자들에게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마치 서문과도 같이 작품 문두에 인용이 되는데, 독자들은 이 인용문을 보고 앞으로 이 작품이 어떤 분위기의,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게 된다.

32) 이자영, 「천상병 시의 공간과 시간」, 동아대 석사학위논문, 1997, p.35.

33) 문세영, 앞의 논문, p.35.

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추억의 산이며 할머니와 함께 전통적인 이미지인 모성의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듯 시적 화자는 할머니 등 뒤로 보이는 산을 통해서 신성하고, 순수한 자아로 돌아가고 싶은 바를 표현했다.[34]

하지만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돌아가고픈 순수의 세계는 이미 날카로운 소름의 폭력으로 소멸 당했으며 돌아가고픈 아니, 절실하게 도피하고픈 산과 성황당 꼭대기는 눈으로 점철당한 허구의 세계이기에 그는 임시성이 짙은 주막에라도 피안의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며 함께 할 수 없는 아기들을 바라보며 현실과, 접근하고픈 세계와의 괴리를 실감하며 '즐거운 모양이다' 라고 담담하게 전한다. 이는 담담하기에 시적 자아의 현실이 가혹한 것이며 손에 닿을 수 없는 위안과 모성의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이 무모하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계속해서 세계인식의 부정성을 통한 자아의 허무의식과 위기의식을 아래 두 편의 시에서 살펴보자.

보지도 못한 내 간이
괘씸하게도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 쪼무래기가 뭘 할까만은
아직도 살고픈 목숨 가까이 다가온다.

나는 원래 쿠데타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수습을 늙은 의사에게 묻는데,
대책이라고는 시간따름인가!

-「간의 반란」일부 -

지난날, 너 다녀간 바 있는 무수한 나뭇가지 사이로 빛은 가고, 어둠이 보인다. 차가웁다. 죽어가는 자의 입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소슬하고, 한 번도 정각을 말한 적 없는 시계탑침이 자정 가까이에서 졸고 있다. 계절은 가장 오래 기다린 자를 위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34) 박유미, 앞의 논문, p.23.

-「서대문에서」전문 -

그는 신체가 병든 징후를 느끼지만 거기에 맞설 대책은 마련치 못한다. 이러한 사태를 시인은 '쿠데타'로 상징되는 우리나라의 암울한 정치상황으로 알레고리화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암울함을 걷어 낼 수 있는 것은 시간 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허무의 세계로 인식한다.

이러한 허무와 위기의식은 「서대문에서」라는 시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빛은 가고' 어둠만이 보이는 곳에서 화자는 '죽어가는 자'이다. 세계는 단지 차가운 곳일 뿐 아무런 역동성도 없으며 '한 번도 정각을 말한 적 없는 시계탑'과 같이 정의로움이 실현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곳일 뿐이다. 거기에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가 결국 행복에 가닿는' 혹은 '가장 오래 기다린 자'가 먼저 그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변증법적 진리가 부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증법적 믿음의 붕괴는 시인에게 절망감과 생의 무상함을 일깨운다.[35]

2. 단절과 소외

천상병의 시에서 비극적이고 단절된 세계인식의 태도는 삶의 구체적 현실과 만날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삶의 구체적 현실이란 그가 처해 있던 소외의 체험을 말한다. 그리하여 안주하지 못하고 떠도는 자의 의식을 표현한 시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36] 더군다나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실과 대립된 사고를 하는 시적 자아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며,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신의 길을 찾아보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혼자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시적 자아는 소외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37]

「삼청공원에서」는 시적 화자의 소외감이 서정적으로 표현된 시이다.

---

35) 전현미, 「천상병 시 세계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2003, p.18.

36) 김영민. 「천상병 시의 초월지향성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2, p.25.

37) 천상병 시 「약속」에서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서러운 길에서 운명을 느끼며 불투명한 삶을 암시하고, 「주일·2」에서는 자신의 길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 한다. 이런 정처 없는 방황에서 자신의 존재가 미약함을 깨닫고 소외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제일 외로운 공원으로 서울에서 제일 외로운 사나이가 왔다.
외롭다는 게 뭐 나쁠 것도 없다고 되뇌이면서...
이맘때쯤이 그곳 벚나무를 만발하게 하는 까닭을 사나이는 어렴풋이 알 것만 같았다. 벚꽃 밑 벤치에서 만산(滿山)을 보듯이 겨우 의젓해지는 것이다.
쓸쓸함이여, 아니라면 외로움이여,
너에게도 가끔은 이와 같은 빛 비치는 마음의 계절은 있다고, 말 전해다오.

2

저 벚꽃잎 속에는 십여 년 전 작고하신 아버지가 생전의 가장 인자했던 모습을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고, 여섯에 요절한 조카가 갓핀 어린 꽃잎가에서 파릇파릇 웃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삼청공원에서」 전문-

시인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소외감이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와 연결되면서 시인으로 하여금 십여 년 전 작고하신 아버지와 요절한 조카, 어머니를 추억하게 한다. 사회적인 동물 인간에게 가장 포근한 안식이 되는 가족과도 시인은 단절 돼 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노래하면서 부재한 모성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름은 대답이 없는 것으로 삼청공원은 소외의 광장이 된다. 소통할 수 있는 대상과의 맞닿음이 인간에게 공허함을 준다.

이처럼 철저히 혼자된 '사나이'는 그다지 나쁠 것도 없다면서 자신의 소외를 부정하지만 끝끝내 2연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보아 줄 대상을 찾는다. 기본적인 사회집단과 안식의 공간인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은 더더욱 자아를 수치심의 동굴로 밀어 넣으며 안으로 침전하게 된다. 철저히 혼자됨을 인식하는 자아에게 세계로부터의 소외는 '나'의 무기력함과 하강의 부정된 이미지를 반추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화자의 이미지화는 그가 빈번히 사용되었던 제재인 '새'에서도 드러난다.

저 새는 날지 않고 울지 않고
내내 움직일 줄 모른다.
상처가 매우 깊은 모양이다.
아시지의 성(聖)프란시스코는
새들에게
은총 설교를 했다지만
저 새는 그저 아프기만 한 모양이다.
수백 년 전 그날 그 벌판의 일몰과 백야는
오늘 이 땅 위에
눈이 내리게 하는데
눈이 내리는데.....

- 「새」 전문 -

여기서 새는 상처받은 영혼을 상징한다. 깊은 상처로 날지도 못하는 새는 자아의 슬픔이 극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 '날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새인지조차 망각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안고 있어 시적 자아의 모습은 더 이상 발을 디딜 곳이 없음을 인식한다. 현실의 구속과 억압이 지니는 폭력성은 시적 자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새, 즉 허상의 이미지에까지 상처를 입힐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다.[38]

삶의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은 '일몰과 백야' 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다. 하강적 이미지 때문인데, '일몰' 이라는 소멸적 의미와 '백야' 라는 어스름한 분위기가 시적 자아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더욱, 잘 드러내 준다. 심지어 은총의 공간에 내리는 눈까지도 즐겁고 순수한 대상이 아니라, 상처받은 새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날카로운 감각의 이미지로 작용한다.[39] 또

38) 문세영, 앞의 논문, p.29.

한 '새'로 형상화되어 이 세계에 내려온 시인은 현실의 냉혹함을 알고 상승하려 하지만 이는 이내 좌절되고 '일몰과 백야' 라는 소멸의 현장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 너머 세계로 가는 방법은 소멸뿐이기에 시인은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상승을 하려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을 사회와의 소통으로 본다면, 현실 너머 세계는 저승이며 단절인데 '새'는 이를 알면서도 현실을 죽음보다 더 가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실 너머 세계를 끊임없이 갈망한다. 이러한 가혹한 갈망은 선택에 의한 자유의지로 형성된다기 보다는 소외로 인한 소통의 갈증이 빚어낸 결과이며 죽음의 비상구를 찾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시인은 또 한 번 자신의 자아를 한탄했을 것이다. 이러한 한탄을 통한 소외의 자의식은 독백을 통한 아래 시 「공상」에도 잘 드러난다.

기어이 스며드는 것

절벽 위에서
아슬한 그 절벽 위에서
아!
저 화원입니다.
저 처녀입니다.

붉고 푸르고 누른 내 마음의 마차여
오늘은 또 어디메로 소리도 없이
나를 끌고 가는가

- 「공상」 전문 -

이 작품에서 '절벽'은 천상병의 시세계를 특징짓는 '단절'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슬한 그 절벽 위에' 있는 시적 자아와 그 자아의 지향점인 '저쪽'에 존재하는 '화원/처녀' 사이에는 절벽이라는 단절이 가로막고 있다. 그

39) 홍금연, 「천상병 시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p.12.

는 '저쪽'의 세계로 가고자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그곳에 도달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긴다. 자아의 '이쪽', '여기'에는 안주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름다움, 순수함의 세계에도 닿을 수 없다는 불안이 자아를 괴롭힌다. 또한, 그 절벽은 '아슬한' 것, 그래서 결코 뛰어넘을 수없는 벽이다. 그리하여 자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절에 의하여 존재로서의 괴로움을 끌어안은 채, 결국 질질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40]

또한 절벽은 더 이상 앞으로 진보 할 수 없다는 공간적 한계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절벽은 공상의 공간적 형상화이기 때문이다. 공상은 인간의 생각을 진보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도록 발목을 붙잡는다.[41] 더군다나 제목에서도 드러나는「공상」은 몽상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꿈꿀 수 있는 초월적 세계의 모습은 결국 그 형태를 지속시킬 수 없으며 결국 '어디메로 나를 끌고 가는가'에 대한 물음은 초월적 세계로의 길을 나선 시인의 길찾기가 실패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철처히 혼자됨은 자연물을 통한 비유적 시에도 잘 나타난다. 아래 시 「나무」가 대표적 예이다.

한 그루의 나무도 없이
서러운 길 위에서
무엇으로 내가 서 있는가
새로운 길도 아닌
먼 길
이 길은 가도가도 황톳길인데
노을과 같이
내일과 같이
필연코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약속」 전문 -

40) 김영민, 앞의 논문, p.26.

41) 박성애, 「천상병 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p.28.

이 작품의 시적 공간은 ‘길 위’ 이다. 길은 지향과 추억의 속성으로 인해 흔히 인생 노정을 비유하거나 소통의 낭만의 개념을 뜻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시적 자아가 처해 있는 노정은 ‘한 그루의 나무’ 조차 없고 ‘새로운 길’도 아닌 ‘황톳길’로 표상되어 있다. 인생의 여정에는 무수한 시련이 잠복되어 있으며 인간은 그것들과 끊임없이 대면하게 되며 극복하기도 좌절하기도 하며 눈물을 훔치고 후회도 한다. 그럼에도 삶이 시련만의 응집체가 아닌 이유는 ‘길 위’ 에서 만나는 또 다른 대상들, 즉 타자와의 소통, 자연물의 아름다움과의 조우, 비호공간에서의 휴식 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에 나타난 길의 공간에는 타자는커녕 ‘나무‘로 표상된 자연물 내지 임시 휴식 공간마저도 없고, ‘새로운 길’이 함축하는 기대나 설렘이 없으며 ‘황톳길’로 표상된 시련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결국 시적 자아의 길은 외롭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길이다. 또한 마지막에서 필연코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 약속의 긍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현재의 자아에 대한 만족도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자아의 소외와 불만족을 돌려 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 시 「들국화」는 위의 시 「약속」에서 사용한 공간에서의 소외가 대상과의 소통 단절로 심화돼있다.

산등성 외따른 데,
애기 들국화.

바람도 없는데
괜히 몸을 뒤뉘인다.

가을은 다시 올 테지.

다시 올까?

나와 네 외로운 마음이,
지금처럼 순하게 겹친 이 순간이-

- 「들국화」전문 -

이 시는 '들국화' 라는 자연물을 대리적 상관물로 제시한다. 외로움을 노래하면서도 담담할 정도로 어조가 가라앉아 있어서, 절제된 어조가 쓸쓸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반어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로움의 감상 역시 이 시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공간의 공백과 적막성이 클수록 외로움은 고조되게 마련인데, 이 시에서는 그러한 공간의 기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들국화'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자라는 꽃이 아니라 '저 홀로' 자라는 꽃인데, 그것이 왜진 공간에 피어 있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외로움이 극명해지는 것이다.

이 시에서 외로움의 정조는 '외로운 마음' 이라는 직설적 시구와 '산등성 외따른 데' 에서 연상되는 소외의 이미지를 통해 구체화되며 '바람도 없는데/괜히 몸을 뒤뉘인다' 라는, 고적감에서 야기되는 행동 특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한편 이처럼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외딴곳에 핀 한 송이 어린 들꽃의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시적 자아가 자문처럼 내놓은 '가을은/다시 올테지'는 '다시 올까?'라는 다소 회의적인 물음으로 답하여 끝을 맺는다. 가을은 계절의 순환을 거쳐 다시 돌아오겠지만, 존재와 존재가 일치감을 느낀 '이 순간'을 다시 만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들국화를 통한 자아와 세계의 합일이 좌절된 분리의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화합의 순간이 오지 않으리라는 막연하지만 확실한 불안장애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문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소통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결혼하기 전의 방황과 슬픔의 정서[42]를 담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시들은 초기시에 속하며 천상병의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외로 인해 부정

42) 천상병은 1967년에 동백림 사건에 연류 되어 체포, 약 육 개월 간 옥고를 치렀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심한 음주, 영양실조로 서울 시립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행방 및 사망으로 처리 되어 살아 있는 시인의 유고시집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적 세계인식이 형성된 시기로, 슬픔과 외로움이 녹아들어 있고 그가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자연물 역시 그를 고립케 만드는 대결의 세계로 드러나 있다.

또한 자신을 무능하고 시시한 시인으로 몰아가는 현실에 대해 그는 도피하고 싶어 하고 개체의 소멸을 소망하며 자신에게 아픔을 가하는 세계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세계와의 소통에 장애를 빚는다.

따라서 시의 이러한 분위기에 맞는 시적 긴장들이 정제된 언어와 하강적 이미지로 돼 있어 그의 부정적 세계인식을 표현하고 있으며 우수, 슬픔, 고독의 내면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Ⅲ. 중기시의 세계인식

1972년 시인은 친구 목순복의 누이 동생인 목순옥과 결혼한 이후 6편의 시집과 각각 1편의 산문집과 동화집을 출간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초기의 시적 긴장이 이완되며, 비근한 생활 속의 제재들이 특별한 표현 장치 없이 토로되고 있다. 특별한 시적인 표현 장치에 의하지 않고 쓰여진 그의 시들은 순진성과 진솔성이 두드러진 반면, 범박하고 평이한 것으로 나타난다.[43]

하지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식을 갖고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44] 시인의 평이한 진솔성은 그의 시작 활동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적 특징은 자아와 세계에 대한 긍정과 자신감의 표현으로써 자기 주장적 태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세계에 대한 만족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1. 세계인식의 긍정성

긍정적 세계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실존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지각과 접근으로 나타난다.[45]

또한 부정적 세계인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부정적 세계인식의 극복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세계와 실존적 삶과의 관계없이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인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긍정적 세계인식을 형성하는 것의 출발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시 「내 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

43) 이건청, 「무욕의 정신과 자유인의 시」, 『현대문학』, 2002, p.89.

44) 송운섭, 앞의 책, p.273.

45) 송운섭, 앞의 책, pp.14~16.

누가 나에게 집을 사주지 않겠는가? 하늘을 우러러 목터지게 외친다.
들려다오 세계가 끝날 때까지 나는 결혼식을 몇 주 전에 마쳤으니 어찌 이렇게 부르짖지 못하겠는가? 천상의 하나님은 미소로 들을 게지.
블란서의 아르투르 랭보 시인은 영국의 런던에서 짤막한 신문광고를 냈다.
누가 나를 남쪽 나라로 데려가지 않겠는가. 어떤 선장이 이것을 보고, 쾌히 상선에 실어남쪽 나라로 실어 주었다. 그러니 거인처럼 부르짖는다.
집은 보물이다. 전세계가 허물어져도 내 집은 남겠다.....

-「내 집」전문 -

위의 시는 결혼을 하고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시인의 희망을 담고 있다. 여기서 '집'이란 정착하고 싶은 시인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공간이며, 곧 시인이 원하는 현실적 세계이다. 더군다나 집에 소유의 관념을 불어넣음으로써 세계와의 소통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 제재를 자신의 안식처로 바라보는 것은 초기시의 자연이나 세계가 주로 시인의 외로움 또는 절망감에 의한 갈등, 고뇌 의식이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던 것과 대조된다.

즉, 자연과 세계는 방랑과 방황을 마치고 아늑하고 포근한 자신의 쉼터로, 이상적 소망이 녹아들어 있는 현실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인 '전 세계가 허물어져도 내 집은 남겠다' 라는 웃음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삶을 유머러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까지 지녔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에서는 자아를 '거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충분한 사랑과 자신감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으며 '부르짖는다' 라고 외치며 자아의 이상과 소망을 자기 주장적 태도로 내세우고 있

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주장적 태도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기에 시「내 집」은 시인의 긍정적인 세계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계속해서 시 「변두리」를 통해 소박한 생활과의 소통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근처는 버스로 도심지까지 가려면
약 한 시간이 걸리는 변두리.
수락산 아랫마을이다.

물 좋고 산 좋은 이곳,
사람도 두터운 인심이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고장이다.

오늘은 부실 보실 비가 오는데,
날은 음산하고 봄인데도 춥다.
그래서 나는 이곳이 좋아 이곳이 좋아.

- 「변두리」전문 -

위의 시는 생활시로 그가 정착한 동네에 대한 시인데, 일상생활 속의 작은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날은 음산하고 봄인데도 춥지만 '이곳이 좋다' 라고 반복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자아를 둘러싼 현실을 수용하면서도 비록 시인이 인식한 세상이 그의 욕심과 바람만 못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아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현실을 미화하거나 외면하는 것 보다 훨씬 화해로운 세계와의 소통의 과정이며 세계에 대한 칭찬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행복을 확신하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이 된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기쁘게 노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인의 이러한 생활 속 제재에 대한 노래는 보다 여유롭고 안정된 모습으로 현실의 삶에 순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 본 시가 시인의 공간적 세계 및 현실적 세계에 대한 소통이었다면 아래 시 「장모님」과 「가족」은 타인과의 소통이다.

나의 장모님은
우리 부부와 함께 산다
장모님은 만으로 칠십팔 살이다.
칠십팔 세인 데도 정정하여
밥도 지으시고
세탁도 다 하신다.

마흔일곱이었을 때는
당시 이승만 독재와 항거하여
투쟁하던 민주당의 군당 부녀장이었던
장모님이다.

언제나 남을 사랑하고
인자한 장모님은
항상 화를 안 내신다.

나를 수발하시고
손자를 돌보시고
아까울 것 없이 일하시는
장모님의 장수를 기도하고 있다.

- 「장모님」전문 -

우리집 가족이라곤
1989년 나와 아내와
장모님과 조카딸 목영진 뿐입니다.
(...)

하느님이시여!
우리 가족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 「가족」일부 -

위의 두 편의 시는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가족에 관한 시이다. 시인은 결혼하면서 장모님과 같이 살게 되는데 장모님을 '엄마'라고 부를 만큼 친하고 다정했다고 한다.

시인이 초기에 지니고 있던 외로움과 소외는 이러한 관계맺음으로 인해 점차 극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처럼, 시인도 그 동안의 슬픔과 외로움을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 해소하고 있는 듯 보인다.[46] 긍정적 세계인식을 형성하는 데 일차적인 것이 현실의 수용과 적응이라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인과의 만남이다. 세계인식은 상호작용적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기에 천상병에게 있어 가족은 자아를 따뜻한 연민과 보드라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일상적 생활을 제재로 한 이러한 시들은, 초기에서 보여주었던 언어의 조타와는 달리 매우 평이하고 서술적인 시적 경향을 드러낸다. 이는 그만큼 생활이 안정되면서 쉽고 자유로운 시를 쓰려는 시인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 진다. 이는 주변의 세계와 사물, 사람과의 관계 등 시인 자신의 눈에서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대상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아와 대상과의 긴장이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시 「희망」은 세계와의 소통으로 인해 변화된 시인의 긍정적 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내일의 정상을 쳐다보며
목을 뽑고 손을 들어
오늘 햇살을 간다.

46) 이은규, 「천상병 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p.34.

한 시간이 아깝고 귀중하다.
일거리는 쌓여 있고
그러나 보라 내일의 빛이

창이 앞으로 열렸다.
그 창 그 앞 그 하늘 !
다만 전진이 있을 따름 !

하늘 위 구름 송이 같은 희망이여!
나는 동서남북 사방을 이끌고
발걸음도 가벼이 내일로 간다.

- 「희망」 전문 -

시적 화자는 내일의 정상을 쳐다보며 오늘 햇살을 맞으러 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햇살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준비를 뜻한다. 준비를 해 나가는 시적 자아의 행동도 자못 떳떳하며 자신감을 듬뿍 충전한 모습이다. 물론 그를 둘러싼 일상의 삶이 전적으로 완벽하게 순화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할 일들은 쌓여있고 현실의 무게도 제법 돼 보인다.

하지만 덜 완벽한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전진은 그만큼 시적 자아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것을 뜻하기에 그 숨은 뜻이 더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적 화자가 미래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희망은 '내일의 빛이, 창이 앞으로 열렸다.' 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빛과 창이 앞으로 열렸다는 것은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전진의 의미이자 희망의 메시지이다.

여기에서 시적화자의 인식변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의 정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이고 '전진이 있을 따름' 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진을 원하는 화자에게서 예전의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동서남북 사방을 이끌고 내일로 갈만큼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앞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가족에게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결혼은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그의 시세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결혼 이후, 천상병의 세계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며 그의 시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 된 것을 보면, 결혼은 천상병에게 심신의 안정을 되찾아 주고 세계 인식이 변화하도록 한 전환점이 되었음이 분명하다.[47] 나아가 이러한 가족의 보호로부터 오는 사회와 집단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은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확신감을 지니게 하는 계기가 된다.

2. 소통과 만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상병 시인은 가족과의 온화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한 세상과의 거리 좁히기가 성공하자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형성해 나아간다. 이는 단순한 관계론적 소통 보다 확산된 긍정적 세계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자신의 무능함까지 감싸 안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욕에 대한 긍정은 시인의 긍정적 세계인식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이다. 비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혹한 것을 긍정하는 것은 대단한 자신감과 세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다. 시인 역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시로 밥벌이를 해야 하는 경제적 활동인이었다. 하지만 가난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미화가 전혀 없는 현실에 대한 떳떳한 맞섬이요, 세계에 대한 확실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이러한 천상병의 시에서 드러나는 일상적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무욕에 대한 긍정은 자신의 가난이나 부족한 생활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늘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태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무욕에 대한 시각은 비단 가난 뿐 아니라, 모든 대상을 바라보는 데

47) 전해진, 「천상병 후기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p.57.

공통적으로 작용하는데,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초기의 시인은 세계와의 단절로 인해 곧잘 좌절하고 무상감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절망과 희망의 반전 속에서 시인은 세상을 보다 폭넓은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사회와 삶에 대한 갈등과 긴장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특징을 그의 무욕에 대한 예찬시인 「나의 가난은」을 통해 살펴보자.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갑 속의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쳐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딸들아,
내 무덤가 무성한 풀잎으로 때론 와서
피로왔음 그런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 라고,
씽씽 바람 불어라……

- 「나의 가난은」전문 -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욕심과 실재하는 빈곤에 대해 많은 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질이 인간을 구속하는, 오늘의

현실에 있어 가난은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삶의 부정적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시인 천상병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 물질적 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시인은 오늘 아침 그가 누릴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물질적 풍요에 행복해 하지만 이내 내일의 금전적 걱정으로 서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가 햇살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햇살은 물질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물질이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인간의 삶을 구속할 때, 인간의 삶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 시에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대 사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풍족한 물질을 지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느냐' 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떳떳함은 비쳐오는 햇빛에도 견딜 수 있는 떳떳함을 강조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비춰오는 햇빛’이 갖는 습관적 반응은 눈부심과 그에 따르는 개인의 초라함, 무상감일 텐데 시인은 오히려 떳떳하다고 호언한다. 이 호언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그가 말하는 가난은 단순한 물리적 경제적 가난이 아니다. 가난은 시인에게 있어 정신적 순수이며 정의로움에 대한 지향이다. 따라서 시인은 괴롭게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과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무욕’으로 가난을 긍정하였다.. ‘예금통장’은 바로 이 무욕을 상징한다. 이 무욕과 가난으로 인해 시인은 ‘내일을 믿다가 / 이십년!’이라고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씽씽 바람 불어라’ 라고 소리 지르며 그럼에도 자신은 건재할 것 이며 앞으로도 현재의 삶을 떳떳하고 자유롭게 받아들이겠다고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시 「소릉조(小陵調)」는 가난에 대한 관대한 시선이 재치 있게 표현돼 있다.

아버지 어머니는
고향 산소에 있고

외톨배기 나는
서울에 있고

형과 누이들은

부산에 있는데,

여비가 없으니
가지 못한다.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생각느니,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 「소릉조(小陵調)[48]」전문 -

이 시는 가족 친척들과 떨어져 있음에서 오는 고독과 단절이 표층적인 정서를 이루며, 경제적 궁핍에서 기인하는 뼈저린 가난의 체감이 그 심층의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시에서 가난의 문제는 한탄이나 절망이 아닌 '저승 가는데도/여비가 든다면/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하고 반문함으로써 가난하여 찌들고 병들었다면 저승 가기가 쉬울 것이 분명한데도 오히려 '나는 영영/ 가지도 못하나?' 라고 말함으로써 가난하기에 오히려 저승에 갈 염려도 없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역설의 미학을 드러내고 있다.[49]

이러한 역설의 미학을 통해 '생각느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인생을 관조한 시인의 성숙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시에서 서는 안 될 부분이 가족과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자신의 세계에 대한 여유로운 시각을 갖췄다는 데 있다. '아버지, 어머니,' '형과

48) 소릉은 두보의 호로써 두보가 한 평생을 가난하게 보낸데 착안하여 지은 제목이다.

49) 김영민, 앞의 논문, p.38.

누이', 그리고 '나'라는 인물이 각각 고향과 부산, 서울이라는 공간적 거리에 의해 격리되고 나뉘어져 있으며 '여비 없음'이라는 가난의 개인적 비참함이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느니, 아, 인생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라고 시의 의미를 반전시킴으로써 시인의 삶에 대한 넓고도 원대한 개방성과 수용성이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일상의 소박함을 예찬한 시 두 편을 살펴보도록 하자.

술 없이는 나의 생을 생각 못한다.
이제 막걸리 왕대폿집에서
한 잔 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젊은 나라에는 취하게 마셨지만,
오십이 된 지금에는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아내는 이 한 잔씩에도 불만이지만
마시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을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 「술」전문 -

나는 술을 좋아하되
막걸리와 맥주밖에 못 마신다.

막걸리는
아침 한 병(한 되) 사면
한 홉짜리 작은 잔으로
생각날 때문 마시니

거의 하루 종일이 간다.

맥주는
어쩌다 원고료를 받으면
오백 원짜리 한 잔만 하는데
마누라는
몇 달에 한 번 마시는 이것도 마다한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음식은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때는
다만 이것뿐인데
어찌 내 한 가지뿐인 이 즐거움을
마다하려고 하는가 말이다.

- 「막걸리」 일부 -

위의 두 시는 시인이 평소 가장 아꼈던 친구, 술에 관한 이야기이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시인이 늘 즐겨 찾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술'이었다. 시인은 늘 조금씩의 술을 마시며 행복과 만족을 느꼈고, 이것은 곧 위와 같이 시로 나타나곤 하였다.

특히「술」에서 나타나는 술을 즐김은 취함의 탈출이 아닌 즐김의 대상물이다. 흔히 술은 즐겁거나 슬프거나의 감정의 측량을 수월하게 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여기서의 술은 극단의 감정을 여과하는 장치가 아닌 삶에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만족의 경지이다. 더군다나 두 번째 시「막걸리」에서 술을 마시는 시인의 모습은 마음 놓고 마시기보다는 돈을 생각하며 양을 정해놓고 마셔야 하는 한계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표현 돼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읽는 이로 하여금 이러한 물질의 한계가 쓸쓸하다기 보다는 낭만적으로 표현돼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취미에 대한 아내와 세상의 시선에 대해 떳떳하게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며 자기 주장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시적 표현에서도 두드러지는데 가난에 대한 깔끔한 시선과 무욕에 대한 자기주장이 난해한 시어나 시작기법이 아닌 시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쉬운 시어와 군더더기 없는 일상적 시어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술로 나타난 가난의 낭만성과 즐김은 아래의 시 두 편에서 그의 행복관으로 확장됐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나는 볼품없이 가난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부족하지 않다.

(중략)

그러니 나는 불편함을 모른다
다만 하늘에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가난해도
나는 가장 행복을 맛본다.
돈과 행복은 상관없다.
부자는 바늘귀를 통과해야 한다.

- 「나의 가난함」 일부 -

나는 아주 가난해도
그래도 행복한 편이다.
돈은 아내가 벌고
나는 놀면서 지내니까!

오십세살이니

부지런한 게 딱 싫고
그저 KBS 제 1 FM방송.

- 「나의 행복」 일부 -

「나의 가난함」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시이다. 가난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과 감사하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돈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나는 ~ 하다'는 가난에 대한 표현은 자아의 부끄럽지 않은 시각을 강조한 것으로 가난함으로 최상의 행복을 맛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 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아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행복을 자기 암시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기 최면으로 가난의 현장에 대한 우울함과 무력함을 적극적으로 몰아내고자 하는 세계와의 대화이자 소통이다. 때문에 가난에 대한 긍정은 자아에 대한 화해와 이해의 중요한 발판이 된다.

「나의 행복」도 위의 시와 마찬가지고 가난하지만 행복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시로써 경제적 무능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에 자아를 떳떳하게 공개한다. 세계에 대한 확신과 긍정은 자신이 무능하고 게을러도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Ⅲ장의 긍정적 세계인식은 부정적 세계인식과 그로 인한 소외가 현실과 소통하고 현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임으로써 시인의 의지를 드러내며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다.

이제 시인은 안정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결혼을 통한 가족과의 유대감과 정착이라는 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시인의 내적인 요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타인과의 소통과 현실과의 소통은 긍정적 세계인식과 자신의 가난마저 인정하며 떳떳하게 자기를 주장하며 형성하기에 이른다.

시인의 삶에 대한 인식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평화스럽고 소박한 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며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의식을 갖고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Ⅳ. 후기시의 세계인식

초월적 세계인식은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가 긍정과 부정의 세계에 대한 가치판단에 대한 초월로써의 종교적 세계인식이고 둘째는 현실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진 유아적 순진성이다.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이완, 대결과 화해를 통해 부정과 긍정의 양 극단의 세계인식을 경험했던 시인은 자신의 세계인식을 초월하여 종교적 신앙에 집중한다.

이것이 첫 번째의 종교적 세계인식이다. 여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에 속한 자아의 실체보다는 신과의 관계를 통한 절대자의 시각으로 바라봐 질 '나'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 나의 판단에 의해 쓸모와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나'가 아닌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 자아의 존중감이 결정되는 '나'가 존재하는 것이다.

부정과 긍정의 세계인식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회와 세계에 자아를 던져 자신에 의한 가치판단을 자신이 이루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천상병의 종교적 시세계는 주동의 판단에 의해 인식하는 '나'가 아닌 신과의 관계에 의해 드러나는 '나'가 중요하므로 세계와 '나'를 긍정, 혹은 부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의 초월적 세계인식은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유아적 순진성으로써의 세계인식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에서 사회와 집단이 나에게 옷 입혀 준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심의 순진성은 의도된 거짓자아에 의한 세계인신의 변신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초월감이 형성한 동경의 세계에 시인이 순수하게 젖어들었다는 것이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흔히 부정적 세계인식에 의해 자신을 사회에 나아가기 전 단계의 어린아이로 격하시키는 개념을 퇴행[50]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천상병이 보여준 초월적 유아적 순수성은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세계의 소용돌이 뒤로 숨는

50) 프로이드적 해석에 따르면 '퇴행'이란 현실적 삶이 어떤 반대력에 부딪혔을 때 이를 피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현실을 버리고 '보다 잘 길들여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서 '잘 길들여진 세계'는 다름아닌 과거세(過去世)다. 과거세는 아주 멀리는 원초적 세계이고, 그 중간쯤으로는 가버린 역사적 세계이며 가까이는 지난 날의 유년, 추억 같은 것이다.

비겁함이 아니라 기독교적 신앙에 의해 자아에 대한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인이 현실의 '나'를 초월하여 자유로워진 자아가 '나'에 대한 동심을 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천상병 시인의 절대자에 대한 귀의와 동심 지향은 시인 자신을 보다 위대하며 가치 있는 것에 수렴 시키려는 의지로 탄생한 것이기에 초월적인 세계인식으로 나아간다.[51]

1. 세계인식의 종교성

신앙은 어떠한 자연 '법칙'으로부터도 절대적으로 해방된 것, 그러므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드높은 초월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과 자아의 관계이며 순종이다. 그것은 우주의 존재론적 구성에까지 관여할 수 있으며 더할 나위 없이 창조적인 생활 전반에 걸친 은총과 감사, 신앙적 체험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를 통한 안식은 천상병의 후기시에서 드러난 초월적 세계인식을 엿볼 수 있는 뚜렷한 특징이다. 이를 아래의 시 두 편을 통해 확인해 보자.

하나님이 탄생하기 전의 우주는
완전히 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가 결정하여
유가 됐을 것이고
그 처음의 유가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우주에서
제일 처음으로 유가 되신 하나님은
친구가 친구를 찾는다고
대우주의 별과 별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51) 남기혁, 앞의 책, p.138.

빛과 천체와 그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만물을 태어나시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전문 -

하나님은 어찌 생겼을까?
대우주의 정기가 모여서
되신 분이 아니실까 싶다.

대우주는 넓다.
너무나 크다.

그 큰 우주의 정기가 결합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옵니까?

-「하나님은 어찌 생겼을까?」 전문 -

첫 번째 시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완전한 '무'에서 '제일 처음으로 유'가 된 절대적인 존재로, '친구가 친구를 찾는다고' '별과 별'을 창조한 우주론적인 창조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52] 또한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에 의해 자신이 형성됐다고 믿으며 '나'의 존재를 종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존재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은 그 자체로 순수무결한 것으로, 일반적이며 과학적인 창조의 세계를 초월한 개념이다.

두 번째 시는 호기심 가득한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1연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상상하고 있다면, 2, 3연은 그 대답을 스스로 확신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 '대우주는 넓고, 너무나 크다'는 시인의 생각은 '그 큰 우주의 정기가 결합하여' '우리 하나님'이 되신 걸로 결론짓는다. 이러한 물음과 대답은 시인이 속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와 세계에 대한 질문이 아

52) 강성미, 「천상병 시 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6, p.24.

닌 하나님의 놀라운 종교적 섭리에 대한 세계에 대한 궁금함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인식을 초월한 보다 근원적인 주제이다.

계속해서 아래 시 「예수님 초상」은 그의 종교적 순종이 얼마나 맹목적인 것인 지 보여준다.

한 이 주일 전까지만 해도
액자에 곱게 들어 있는
예수님 초상이 있었습니다.

그 초상은
아내가 교회의 전도사님께
얻었다고 했었습니다.

그 초상을 눈여겨보면
많은 양떼들 속에서의
예수님이신데
조금 먼 데는 양떼들 투성이고
예수님 오른발 왼발 바로 옆에는
각기 두 마리씩의 양이
엄숙하게 예수님을
질서 있게 영리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네 마리의 양은
양으로 변신한 천사님일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었는데

무슨 일로
그 초상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그 예수님 초상 없으면
내 생존가치는 없는 거나 같습니다.

아내여! 아내여!
제발 꼭 같은 초상을 구해 달라고
사정사정했댔지만
아무러한 반응이 없으니
나는 지금
한쪽 다리와
한쪽 팔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발 돌아와 주소서
그렇잖으면 저는
한 알의 흙과 같습니다.

- 「예수님 초상」 전문 -

'예수님 초상'을 소재로 하여 예수님께 이야기하듯이 쓴 위의 시는 잃어버린 예수님 초상을 간절히 찾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예수님 초상이 없으면 자신의 생존 가치가 없다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다리와 팔이 한 쪽씩 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초상'에 비춰지는 '나' 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서는 한 알의 흙과 같은 무심한 존재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내가 판단하는 '나' 가 아닌 절대자에 의해 비춰질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는 것으로 다분히 종교적인 '나' 에 대한 세계인식이다.

아래의 시 「하느님 말씀 들었나이다.」는 그의 세상을 초월한 신과의 대화

가 잘 드러난 시로써 그의 종교적 신념을 통한 일상을 보여준다.

1950년 10월 5일 정오경
나는 종로 2가
안국동쪽을 꺽고 있었습니다.
길꺽는 모퉁이에
한그루 가로수가 있었는데,
그 밑을 지나는 순간
하늘에서
나즈막하나,
그래도 또렷한 우리말로
'명상은 안돼!'하는
말씀이 들리시더니
또 일분 후에
'팔팔까지 살다가, 그리고 더'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2천년만의 하느님 말씀입니다.

- 「하느님 말씀 들었나이다.」부분 -

위의 시는 시인의 생활 속에서 겪은 신앙적 체험을 토대로 쓰여진 시이다. 이러한 체험은 기독교적 삶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도 겪기 힘든 것으로, 88세까지 살 것이라는 하느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감격에 시를 쓴 시인의 벅찬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것은 '명상'과 '하느님의 말씀' 이다. 명상은 자아 혼자만의 공상으로 내가 주체가 된 인식의 덩어리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 명상을 강

하게 거부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 노력한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시인의 종교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그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대화하길 원했으며, 살아있는 신의 존재를 늘 느끼며 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후기시에서는 자아에 의한 '나'와 '세계' 에 대한 인식보다는 종교적 순종과 세계인식이 지배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동심 지향

천상병의 후기시에 눈에 띄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천진한 아이 같은 모습이다. 유난히 아이를 좋아하고, 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는, 시 속에서도 그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아이를 갖지 못했던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시인의 순수한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유아적 순진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얼핏 보면 종교적 초월의식과 이질적 요소 같으나 결국 지향하는 삶의 인식 면에서 같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53]

이러한 성서의 말씀은 그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54]

따라서 종교적 믿음에 의해 드러나는 동심의 세계는 어른으로서의 현실의 '나'를 초월한 세계인식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살펴 볼 시 5편은 그의 동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그의 후기 시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집을 나서니
여섯 살짜리 꼬마가 놀고 있다.

---

53) 마태복음 18: 3~4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54) 이은규, 앞의 논문, p.46.

‘요놈 요놈 요놈아’ 라고 했더니
대답이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뭘’ 한다.

그래서 내가
‘자 가자
사탕 사줄게‘ 라고 해서
가게로 가서

사탕을 한 봉지
사줬더니 좋아한다.

내 미래의 주인을
나는 이렇게 좋아한다.

-「요놈 요놈 요놈아!」전문 -

우리 부부에게는 어린이가 없다.
그렇게도 소중한
어린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난
동네 어린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요놈! 요놈 하면서
내가 부르면
어린이들은

환갑 나이의 날 보고
요놈! 요놈 한다.

어린이들은
보면 볼수록 좋다.
잘 커서 큰일 해 다오.

- 「난 어린애가 좋다」 전문 -

위의 시의 시적 화자는 천진스러운 어린아이이다. 어린아이에게 건네는 교감의 언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여섯 살 어린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화자 역시 같은 또래의 어린아이로 설정 돼 있다.

시적 화자가 어린아이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정신으로 직접 하강해 들어가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천상병 시인의 전체 시가 그렇듯, 이 시도 1인칭 화자의 목소리로 되어 있다. 즉 현실 속의 자아가 유년 속으로 돌아가서 유년 자아에 합일되어 있는, 시인 자신이 유년이 되어 있는 것이다.[55]

따라서 현재의 시간성과 공간성은 초월된, 순수의 지점으로 향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요놈 요놈 요놈아!」와 「난 어린애가 좋다」 등에는 그 동심지향성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요놈 요놈 요놈아」에서는 사탕 하나로 쉽게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동심의 순수함과 장난스러움이 익살스럽게 노래되고 있으며, 「난 어린애가 좋다」에서는 어린아이와 자신 모두를 '요놈'이라고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인의 맑고 투명하게 사물을 인식하고 담백하게 제시하려는 시세계는,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동심에 대한 지향이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동심의 세계에서 순수하고 맑은 정신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 지향적인 낭만적인 동경은 단순한 과거의 유아기적 모습을 동경하여 그 속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닌 초월지향적인 세계인식의 표현이라 할 수

55) 이건청, 「무욕과 정신과 자유인의 시」, 『현대문학』, 2002, p.208.

있겠다. [56]

① 성환이야 성환아
이에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돌날을 맞았구나

아치방[57]에서 본 너는
참으로 귀여웠다.
앞으로 자라면서 더 건강하여라.

무럭무럭 탈없이 커서
훌륭하고 돈 잘 벌고
뜻있는 인간이 되어라.

- 「성환이의 돌을 축하하며」 전문 -

② 은혜는 우리집에 세 들어 사는
홍씨의 외동딸인데
귀엽고 사랑스런 아이다.

네 살인데도 벌써
'네'하고 '그래요' 한다.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아내를 고모라고 부른다.

어떻게나 깜찍한지
은혜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 한다.

56) 김경복, 「서정시와 유토피아 사상」, 『서정시의 본질과 근대성 비판』, 다운샘, 1999, p.19.
57) 당시 카페 이름.

아빠 엄마 어느 쪽이 좋으냐고 물으면
다 좋다고 대답하고
하하 웃는다. - 「네 살짜리 은혜」전문 -

③ 시화전 관계로 부산에 내려왔다
다정한 친구 정용해씨 집에 머무는데
정용해씨의 손자 욱진에게
그만 미칠 지경으로 반해 버렸다.

만 이년 보름된 욱진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축구도 야구도 할 줄 알고
텔레비 영향인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할머니보고
할아버지 탯지 하라고 조르는 아이
나는 그만 반해 버렸다.

부산은 지세가 좋아서
이런 아이가 태어나는가 보다.

- 「아기 욱진」전문 -

위의 시들의 공통점은 시 제목에 모두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동심에 아이덴티티[58]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즉 시인 자신과 아이들의 모습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닮고 싶은 동심에 대한 자아에 대한 갈구이자 어른의 모습에서의 초월이다.

58) 자기 동일성. 일체감, 정체성

또한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 줌으로써 각자에 대한 시인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아에 대한 관심 보다는 자신의 눈에 비춰지는 동심의 모습을 특별한 시적인 기교 없이 표현해 내어 시의 주제와 형식의 단순함이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에 대한 지향은 아이들을 어리지만 대단히 특별하고 기특한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간절한 동심에 대한 지향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Ⅳ 장에서 살펴 본 천상병의 세계인식은 긍정적 세계인식이 초월적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러 기독교적 삶과 신앙심으로 매사에 신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드러냄으로써 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적 순진함과 천진성을 추구하여 현실의 '나'에게서 초월된 세계인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천상병 시인의 절대자에 대한 귀의와 동심 지향 의식은 시인 자신을 보다 위대하며 중심적인 것에 수렴 시키려는 의지로 탄생한 것이기에 서정시 내부의 시적 주체의 형상을 사라지게 만들어 초월적인 세계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여길 수 있다.

Ⅴ. 결론

천상병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1949년~1993년)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했던 시인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량의 작품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의 시에 대한 평가는 시인의 독특한 이력과 기행, 지엽적인 이미지 고찰이 대부분이다. 근래 이르러 종합적인 시세계의 분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 활발한 논의와 연구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시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없어서 아쉽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엽적 접근에서 벗어나고 조금씩 논의되고 있는 천상병의 전체적 시세계 조망에 탄력을 가하고자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 하였다.

먼저 본고는 천상병의 7권의 시집을 기본 텍스트로 삼았으며 시적 특징과 변화 양상을 세계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의 시세계의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천상병에 대한 기존의 '천상 시인' 으로 살다간 행복한 시인으로의 이해에 의문을 제기, 삶의 굴곡으로 인해 불행과 행복을 모두 겪은 사회적 개체로서 해석하여 자아와 세계에 대한 그의 인식이 각 시기에 어떻게 시로 표현되었는지, 세계인식은 어떻게 시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폭넓게 조망하고자 하였다.

천상병의 첫 번째 시세계는 세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소외로 인해 부정적 세계인식이 형성된 시기로, 슬픔과 외로움이 녹아들어 있고 그가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 공간과 그 속에 존재하는 자연물 역시 그를 고립케 만드는 대결의 세계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시의 이러한 분위기에 맞는 시적 긴장들이 정제된 언어와 하강적 이미지로 돼 있어 그의 부정적 세계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인식의 부정성과 그로 인한 소외는 현실과 소통하고 현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시인의 의지를 드러내며 변화한다. 이제 시인은 안정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결혼을 통한 가족과의 유대감과 정착이라는 외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한 것이지만, 현실의 모순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시인의 내적인 요소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타인과의 소통과 현실과의 소통이라는 세계인식과 자신의 가난마저 인정하며 떳떳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긍정적 세계인식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시인의 삶에 대한 인식은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평화스럽고 소박한 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기독교적 삶과 신앙심으로 매사에 신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드러냄으로써 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나'에 대한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유아적 순진함과 천진성을 추구하여 현실의 '나'에게서 초월된 세계인식이 드러났다.

천상병 시인의 시는 난해하거나 기교나 멋이 많이 들어있는 작품들은 아니지만 분명 그 속엔 거부할 수 없는 진리와 웃음이 담겨 있다. 또한 진솔한 언어로, 자신에 대해 진솔하게 표현했기에 시로 자신을 속이지 않았던 자아와 세계에 솔직했던 시인이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세계인식을 어떠한 꾸밈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날것으로 시 속에 녹여냈기에 그의 시작 철학은 참으로 독보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본고는 천상병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작품수가 많은 만큼 각 개별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토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천상병 산문에 대한 연구는 다루지 못했는데,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참 고 문 헌

기본 텍스트 / 단행본

천상병,『천상병 전집』, 민음사, 2007.

_____,『새』, 조광출판사, 1971.

_____,『주막에서,』 민음사, 1979.

_____,『천상병은 천상 시인이다』, 오상출판사, 1984.

_____,『저승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 일선출판사, 1987.

_____,『귀천』, 살림, 1998.

_____,『요놈 요놈 요 이쁜 놈!』, 답게, 1991.

_____,『나 하늘로 돌아가네(유고시집)』, 청산, 1993.

김경복, 「서정시와 유토피아 사상」, 『서정시의 본질과 근대성 비판』, 다운샘, 1999.

김성욱, 「새의 오뇌 - 천상병의 시」, 『시문학』, 1972.

남기혁, 「아웃사이더의 시학 : 천상병론」, 『한국 현대시의 비판적 연구』, 도서출판월리, 2001.

민영, 「천상병을 찾아서」,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강천, 1990.

민영, 「짜릿한 박하술 맛」, 『나 하늘로 돌아가네』, 청산, 1993.

박아청, 『자기의 탐색』, 교육과학사, 1998.

송운석, 『인간관계론』, 학현사, 1994.

송인섭,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삶』, 상조유아아동연구소, 1995.

_____,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1998.

이동원외 공저, 『자아와의 만남』, 하나의학사, 1998.

천승세, 『천상병을 말하다』, 답게, 2006.

최동호, 「천상병의 무욕과 새」,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미래사, 1991.

논문 및 평론

강성미, 「천상병 시 연구」,목포대 석사학위논문, 2006.

김영민. 「천상병 시의 초월지향성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02.

김우창, 「순결과 객관의 미학 - 천상병의 시」,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79, 봄.

김은정, 「천상병 시의 물 이미지 연구」,『한국언어문학』42집, 한국언어문학회, 1999.

김재홍, 「무소유 또는 자유인의 표상 - 천상병론」, 『현대문학』, 1993. 6.

김희정, 「천상병의 전기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0.

문세영, 「천상병 시의 모성 회귀성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2003.

박성애, 「천상병 시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2.

박유미, 「천상병 시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5.

박숙애, 「천상병 시 연구 」, 경남대석사학위논문, 1998.

배상갑, 「천상병 시의 시간성과 공간성 연구」,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2002.

신익호, 「천상병 시 연구」, 『한남어문학』 21집, 한남대, 1996.

이건청, 「무욕의 정신과 자유인의 시」, 『현대문학』, 2002.

이양섭, 「천상병 시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2.

이유진, 「천상병 시 연구」, 한국외대 석사학위논문, 2001.

이은규, 「천상병 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5.

이자영, 「천상병 시의 공간과 시간」,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1997.

전해진, 「천상병 후기시 연구」,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2003.

전현미, 「천상병 시 세계 연구」,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2003.

정한용, 「한국 현대시의 초월 지향성 연구 - 김종삼, 박용래, 천상병을 중심으로」,경희대 박사학위논문, 1996.

조태일, 「민중 언어의 발견 - 다섯 분의 시를 중심으로」,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72, 봄.

체재순, 「이미지 고찰을 통한 천상병의 시의식 연구」, 강릉대 석사학위논문, 1998.

홍금연, 「천상병 시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2004.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국어교육과	학 번	20058018	과 정	석사
성명	한글: 박지경	한문: 朴芝烱		영문: Park Ji-gyeong	
주소	광주 광역시 북구 임동 78 - 323				
연락처	011 - 9625 - 3369 E-MAIL: movieleo@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천상병 시 연구 - 세계인식을 중심으로 - 영문 : A Study on The World Cognition in Chen Sang-byeong's Poetr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7년 1월 일

저작자: 박지경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